

아파트라는 욕망의 찌꺼기 쓸어내기

이사를 하게 되어 인터넷 부동산 매물난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 옵션에 아파트는 제외이다. 끝없이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아파트를 포기한 지 이미 오래전이다. 그런데 요새 다시 아파트 매물들을 보니 엄청나게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에, ‘나도 가질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 허탈함이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을 보며 헛헛해 하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부동산이라는 불의 전차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했다. 작은방에 온 식구가 다 같이 살아야 하는 달동네에 살았다. 나의 방을 갖는 것이 어릴 적 나의 꿈이었다. 나는 큰 집, 많은 돈을 갖고 어려움 없이 사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일단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배웠고 취업된 곳이 재개발 아파트 현장이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지역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지 삶을 사는 주거의 장소가 아니었다. 나도 부동산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고 싶었다. 틈틈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현장 앞 부동산중개소에 자주 드나들었다. 한강변의 아파트를 가질 기회가 나에게도 왔지만, 아파트는 나의 것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도서관에서 경매에 대한 책을 보게 되었다. ‘빌라로 부자 되기’ 뭐 이런 제목의 책들이었던거 같다. 빌라를 사서 임대를 하고 시세가 오르면 팔고를 반복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말에 가진 돈을 털어 경매를 해 사고 또 샀다. 꿈에 부풀어 즐거운 건 잠시 곧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났다. 낡은 집 보수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 세입자에게 전화가 오면 ‘오늘은 무슨 문제로 전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낡은 집을 관리하는 것은 수입이 일정하고 시간에 제약을 가진 월급쟁이에겐 버거운 일이었다. 또 시간이 지나도 빌라의 가격은 생각처럼 오르지 않았다. 임대업자의 삶은 그렇게 쉽게 나에게 오지 않았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부동산이라는 불의 전차에 뛰어오른 결과는 전신 화상이었다.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팔며 나는 불의 전차에서 내렸다.

욕망과 능력의 함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富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채찍을 잡는 마부 노릇이라도 하겠다. 하지만 추구한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술이』,11/『낭송 논어/맹자』/25쪽/북드라마

나는 부를 욕망했고 추구했다. 부를 가지려고 자신에게 열심히 채찍질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한 채찍질은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상처는 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 보려 부에 대해,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일단 월급노동자의 삶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단체에 가입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며 다르게 살아보려 시도 했었다.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파트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일까? 나는 내 능력에

맞는 욕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 의문은 새로운 공부를 하며 나의 욕망은 경제발전이라는 프레임 위에 자본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서 생겨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으로 커갔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은 자연을 파괴하고, 기존의 것들을 해체시켜 아파트와 건물을 끊임없이 지어 올리고, 그 부동산을 부의 상징으로, 이상향으로 만들어 놓아 사람들에게 그것을 욕망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다. 우연히 경제발전의 꽃이라 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며 자연스레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나 또한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이 헛되고, 하늘 높이 있는 부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포기했었다. 지금은 가난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소비수준을 낮추고 경제활동에 쓰는 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나를 성찰하게 하는 공부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부이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엄청나게 올라있는 아파트 가격에 다시 마음이 일렁이는 것이다. 그건 아직도 부에 대한 욕망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 같다. 단지 포기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공부란!

사사로운 욕망이란 날마다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흙사 땅 위의 먼지와도 같다. 하루를 쓸어내지 않으면 매일 한층 더 쌓이게 된다. 『낭송 전습록』/33쪽/북드라마

공부는 오직 하루하루 줄어들기를 추구하는 것이지, 하루하루 늘어나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한 톨의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면 그게 바로 한 톨의 순수한 천리를 회복한 것이다. 얼마나 경쾌하고 깔끔한가! 얼마나 간명하고 쉬운가! 『낭송 전습록』/123쪽/북드라마

매일매일 쌓이는 먼지들을 청소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쌓이는 사사로운 욕망들을 쓸어내야 하는 것이 공부다. 작년 일 년 감이당 대중지성 일성에서 공부를 했다. 감이당 공부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자기와 맞닿는 씨앗문장으로 자기의 문제를 글로 쓰고 그걸 학인들과 나누는 것이었다. 낯설고 생소한 글쓰기에 자판위에서 나의 손가락은 갈 길을 잃었었다. 그래도 그 과정을 4학기에 걸쳐 4번을 해내고 나니 청소한 후에 느껴지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공부하기 전에는 두뇌 피질 사이사이 찌든 때가 가득 차 있는 듯했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된 지도를 갖고 헤매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공부를 한 후에는 두뇌 피질 사이사이 낀 찌든 때를 철저히 쉬로 박박 문질러 깨끗하게 제거한 느낌, 내가 갖고 있는 지도를 알아볼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사사로운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공부임을 알았다. 매일매일 청소하는 마음으로 읽고, 쓰고, 그것을 같이 공부하는 학인들과 토론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낀 욕망의 찌꺼기를 제거해 줄 것이다. 욕망과 능력의 방정식을 풀 함수는 역시 공부인 것이다. 삶의 방향을 전환 할 방법은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날마다 또 다른 사사로운 욕망이 불뚝불뚝 올라오면 그것을 깨끗이 공부하여 쓸어내면 될 일이다. 나는 남은 내 인생 매일매일 경쾌하고 깔끔하게 비질하며 살고 싶다. 이 얼마나 간명하고 쉬운가!